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3. 10. 22.(일)

최근 대중 수출 비중 감소 등 감안시 디리스킹에 따른 국내 영향은 IMF 분석결과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

– 분절화 해소를 위한 각국의 노력과 전세계 차원의 건설적 협력 필요성 강조

국제통화기금(IMF)은 최근 **아태지역 경제전망**을 통해 **중국이 아시아지역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**을 별도로 분석·발표하면서 **공급망 재편**으로 **디리스킹(de-risking 위험 제거)이 발생**하는 **부정적 상황**을 가정한 **시나리오 분석**을 통해 **장기적으로 각국의 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**를 평가하였다.

국제통화기금은 디리스킹으로 **중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 간 프렌드쇼어링(friend-shoring)과 리쇼어링(reshoring)**이 발생하는 **두 가지 상황을 가정**하였는데, **프렌드쇼어링**은 **중국과 OECD 회원국들이 상호 의존도를 낮추되, 다른 국가와의 교역은 유지**하는 환경(OECD 회원국 내 교역은 유지)을 의미한다. 이 경우, **장기적으로 중국의 GDP 감소폭이 6.8%로 가장 크고, 한국**의 경우 **GDP가 4% 정도 감소**하는 것으로 평가했다. 한편, **중국과 OECD가 모든 국가를 상대로 교역을 축소**하는 **리쇼어링**(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)을 가정할 경우에는 **중국의 GDP 감소율은 6.9%, 한국은 10% 가량 감소**하는 것으로 평가했다.

해당 분석은 **디리스킹**이 **전세계 성장에 부정적 영향**을 미칠 우려를 경계하며, **각국**이 **세계 공급망에 통합되기 위한 개혁 노력**을 지속하고, **분절화에 대응**하기 위한 **전세계 차원의 건설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**한다는 점에서는 **의의**가 있다. 또한 **한국**의 경우, **중국 및 OECD 국가와의 교역비중 높은 개방경제형 국가**라는 점에서 **디리스킹 영향**을 받을 **가능성**이 있다.

다만, **해당 분석**은 **과거 대중 수출비중이 계속 높아지던 '00~'21년**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, **'22년 이후 대중 교역구조의 빠른 변화**를 **반영하고 있지 못하다**. 즉, **'23년(1~9월)**의 **대중 수출비중**은 **'15~21년에 비해 약 6%p 크게 낮아졌고**, **중국**의 **수입국가 순위**에서도 **한국**은 **'19년 1위**에서 **'23년(1~9월) 3위**로 **하락**하였다. 이는 해당 분석이 **한국**의 **디리스킹 영향**을 **과대추정했을 가능성이 크다**는 것을 의미하며 **해석에 유의할 필요**가 있다.

* 對中수출비중(%): ('00~'04)15.0 ('05~'09)22.1 ('10~'14)25.0 ('15~'21)25.6 ('22)**22.8** ('23.1~9)**19.7**

정부는 **공급망 재편** 등 **향후 대외여건 변화** 속에서도 **우리 경제**의 **견인차**인 **수출**이 **안정적으로 성장**할 수 있도록 **수출 지역** 및 **품목**의 **다변화**와 **산업 경쟁력 강화** 등 **근본적인 수출 체질 개선 노력**을 **꾸준히 지속**해오고 있으며,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**더욱 강화**해나갈 계획이다.

담당부서	국제금융국 국제통화팀	책임자	팀 장	박은정 (044-215-4840)
		담당자	사무관	안건희 (gunny14@korea.kr)
	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	책임자	과 장	이승한 (044-215-2730)
		담당자	사무관	최문성 (moonsung@korea.kr)